

# 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## 안전한 대한민국,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·인력 확충이 시작이다

###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, 무엇이 문제인가?

2013년 정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안전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해 오고 있음

- 2013년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안전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,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음
- 2018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직접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수 3,423명,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 475명

그러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, 최일선에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전담조직 운영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

- 국가-광역-기초의 조직규모가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,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
- 2018년 말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, 시·도 재난안전 전담조직은 평균 3.5개 과, 근무인원은 평균 7명인 반면, 시·군·구 재난안전 전담조직은 전체 자치단체의 67%만 구성되어 있음(대체로 1~2개 팀으로 구성)
-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168개 법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비상대기를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
- 그 결과 재난안전 전담조직 근무자들은 상시적인 비상근무와 재난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
  - \* 2017년 한해에만 분석대상이 되었던 8개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11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발효된 기상특보가 126건으로 조사됨
- 재난안전 전문직렬인 방재안전직의 경우, 소수직렬의 한계와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32%의 결원율과 높은 조기 퇴직률(지방공무원 퇴직율의 약 14배)을 보이고 있음
- 지역의 재난안전 행정수요와 재난안전 전담조직 규모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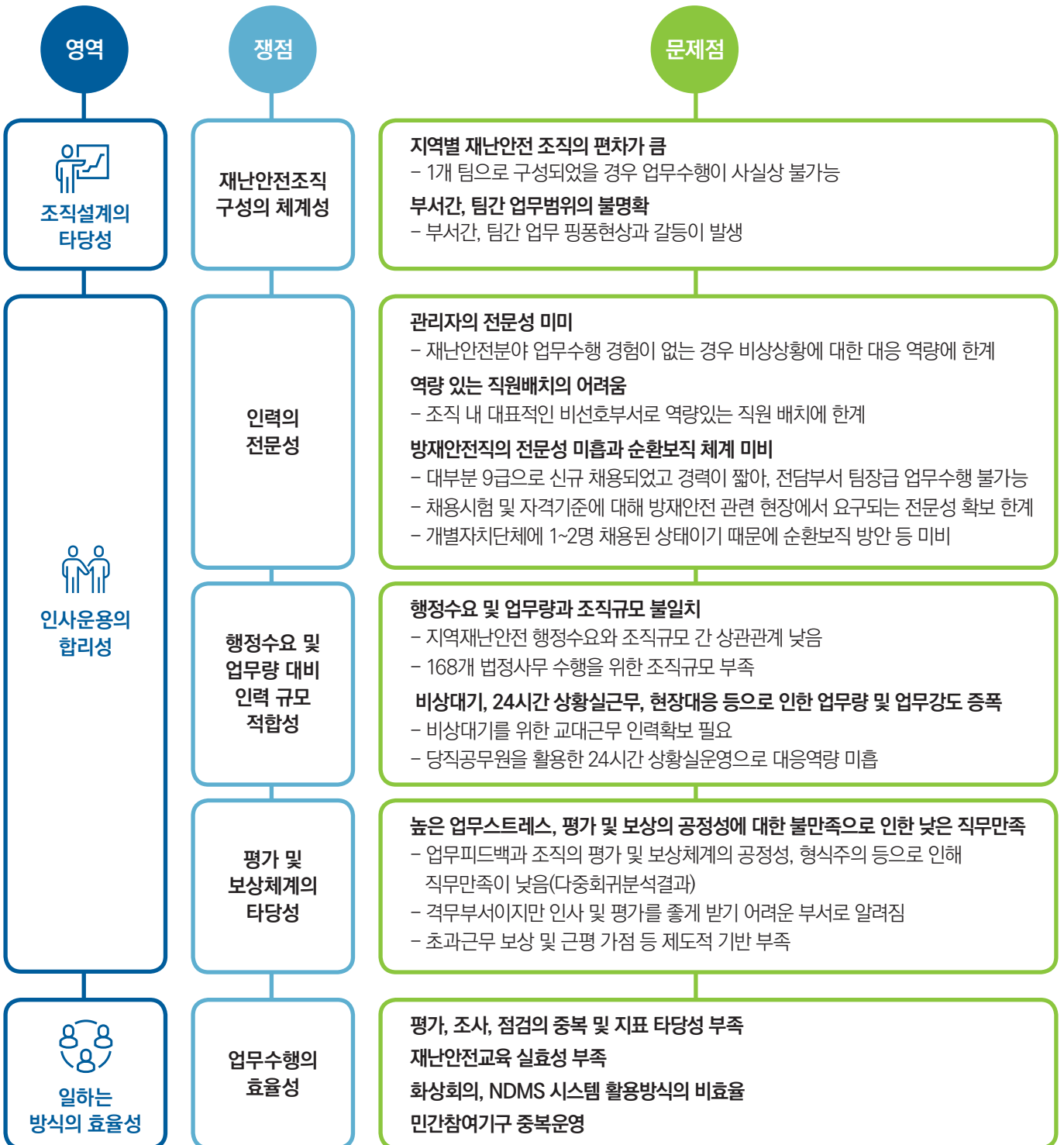
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조직설계의 타당성, 인사운용의 합리성,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

#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

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을 탐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

- (분석대상지역) 서울 성북구, 부산 영도구, 경북 포항시, 경기 과천시, 충북 제천시, 울산 울주군, 강원 양양군, 전남 담양군
- (분석방법) 인터뷰(재난안전 전담부서 과장 및 팀장) 및 문헌연구

##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



##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운영개선방안

###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및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

-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부서는 최소 2개팀 이상으로 설치하되, 비상근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1개 팀 당 적어도 6명 이상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함

###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

- 당직근무자가 야간 상황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, 전 직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·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함

###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위상 제고가 필요함

- 재난안전 전담부서는 비상상황에서 전 직원을 통솔·지휘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
- 격무부서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근무 경력이 승진을 위한 경로가 될 수 있도록 승진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함

### 재난안전 전담부서 관리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함

- 재난안전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-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관리자는 일정기간 해당 부서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- 재난안전 전담부서에 대한 근무평가 가점 적용 및 시간외근무시간 확대 적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

### 기초자치단체가 방재안전직을 적어도 1명이상 채용하도록 하고, 주기적인 채용을 통해 방재안전직 상호 간 멘토-멘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

▶ 내용문의 : 김지수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, 033-769-9857, jisookim@krila.re.kr)

지번호 보기 :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개선방안(이장욱 부연구위원)

[원문보기](#)

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[brief@krila.re.kr](mailto:brief@krila.re.kr)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